# 韓·中 학술 교류의 장 '아모레퍼시픽포럼' 개최

## 아시아 여성문화 공감 나눠

2019 아모레퍼시픽포럼에 참석한 연사들과 아모레퍼시픽재단 관계자들. /아모레퍼시픽

첫 번째 아모레퍼시픽포럼이 지난 8일 아모레퍼시픽 본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아모레퍼시픽재단이 주관하고 아모레퍼시픽이 후원하는 '아모레퍼시픽포럼'은 한국과 중국, 나아가 아시아인의 삶의 질과 아름다움을 제고하기 위한 포럼으로 양국간 대화와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대안적 문명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는 '생명 지속적(Life Sustainable) 문명의 길_중국과의 대화'의 주제로 우리와 인접한 중국의 현대 여성이 역사 문화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디지털화가 도시와 여성의 삶에 미친 영향을 토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포럼에는 아시아의 #여성, #중국, #문화, #문명, #생명, #도시의 키워드에 관심을 가진 대중들과 학계 관계자들, 아모레퍼시픽그룹 임직원 등이 참석했으며, 양국이 동시에 직면한 다양한 변화들과 문화적인 해답을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모레퍼시픽재단 임희택 이사장은 "앞으로도 아모레퍼시픽재단은 '문명의 대전환' 시기를 맞은 중국인과 한국인의 경험, 나아가 아시아인의 경험에 기반한 '대안적 문명'을 모색하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행사 소감과 함께 아모레퍼시픽재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SK네트웍스, 의정부 장애인 차량 무상점검

신정식 SK네트웍스 스피드메이트사업부장(왼쪽)과 정연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장이 '착한정비 나눔'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K네트웍스

스피드메이트가 어려운 이웃 차량을 살폈다. SK네트웍스는 10일 의정부 신시가지점에서 지역 장애인 차량 36대를 무상점검 해줬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비 전문가 7명이 재능 기부로 참여했으며, 점검뿐 아니라 소모품 무상 교환, 유상정비 50% 할인 등도 제공했다.

스피드메이트는 지난해 처음 구성원 제안으로 장애인 차량 점검 행사를 시작해 2년간 전국 4개 지역 150여대 장애인 차량을 돌봤다.

지난 10월에는 서울 사회복지협의회와 서울 소재 복지기관 차량 무상점검 및 수리비용 할인을 지원하는 '착한 정비 나눔' 협약도 맺었다. 협의회 선정 차량 500대를 6개월에 한 번 무상으로 점검해주고 엔진오일과 배터리 등 할인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김재웅 기자 juk@

# '先진입 後규제'

**기자 수첩**

구 서 윤 (산업부)

최근 검찰이 타다 대표를 기소한 이후 공유경제에 대한 논란으로 뜨겁다. 자동차, 집,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을 빌려쓰는 공유경제산업이 전 세계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혁신 사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여러 규제로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다른 나라에선 승승장구인 것이 우리나라에서만 줄줄이 막혀 있는 모습이다. 특히 모빌리티 사업에 있어선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이 강해 많은 업체가 수차례 백기를 들었다. 정부에선 새로운 산업군과 기존 산업군 사이에서 중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기존 집단에게 유리한 방향이다.

외국에서는 정반대다. 전 세계에서는 우버, 그랩, 리프트, 디디추싱 등 차량공유업체가 몸집을 키우며 모빌리티 혁신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외국에서도 차량공유 시스템 도입이 수월하지만은 않았다. 일례로 뉴욕의 경우에도 택시업계가 우버에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뉴욕시는 시대가 변하고 기술과 교통 문화가 발달하는 상황에서 우버를 규제할 수 없다고 생각해 사용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선진입 후규제'를 택한 것이다.

이미 많은 업체가 사업을 접거나 방향을 바꿨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선진입 후규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4차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기술들이 주목받고 있지만 결국 그 목표는 사람의 편리함이 큰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규제가 이뤄지는 게 무조건 진입을 막는 것보다 공유경제 산업 발전에 유리할 것이다.

마이크로 모빌리티 산업에서는 평상시 자주 보던 모습도 불법인 경우도 많다. 인도를 달리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전동킥보드, 면허증이 없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가 모두 불법인데 이런 사용자들이 쉽게 눈에 띈다. 아예 불법으로 단속해 막는 것도 아닌데 적극적 추진은 못하게 하다 보니 다른 나라는 급속히 발전하는 사이 우리나라는 발전 없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yuni2514@metroseoul.co.kr

## 오늘의 운세 11월 12일 (음 10월 16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일하기가 싫으면 변명만 보인다. **48년생** 지나간 일에 연연해서 하지 마라. **60년생** 부부간에도 배려와 존중이 필요. **72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84년생**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라.

**소** **37년생**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심정. **49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상쾌한 하루. **61년생** 송사에 엮이기 쉬우니 말조심. **73년생** 오늘의 초대는 당신을 유혹하는 것이니 조심. **85년생** 불경스러운 말은 듣지도 말고 행동.

**호랑이** **38년생** 행복이 멀리 있지 않으니 주변에 있다. **50년생**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주의. **62년생** 가정의 화목이 최고의 행복이다. **74년생** 감정절제를 잘해야 일을 마무리할 수 있다. **86년생** 남의 단점만 보려 하면 원망을 듣는다.

**토끼** **39년생** 영원한 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51년생** 다다익선이니 모을 수 있을 때 모아라. **63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은 과감히 포기. **75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언행을 조심하라. **87년생** 언제나 기본의 성실함은 솔선수범이다.

**용** **40년생** 돼지띠와의 만남으로 걱정거리가 해소. **52년생** 과거의 인연이 속을 썩인다. **64년생** 삶은 계속되고 아직도 꿈꿀 시간은 있다. **76년생** 확실한 의사 표현이 중요하니 머뭇거리지 마라. **88년생** 이만하면 건강하게 좋은 인생이다.

**뱀** **41년생** 병문안 갈 일이 있다. **53년생** 말보다 나누는 행동으로 보여 줘라. **65년생** 즐거운 일이 넘치니 뭘 해야 하나 고민. **77년생** 마른 논에 물들어오듯이 문제가 해결된다. **89년생**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서도 새우젓 얻어먹는다.

**말** **42년생** 날씨 탓만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54년생** 내키지 않아도 웃어야 하는 현실이 울적하다. **66년생** 일취월장할 기회가 오니 잘 포착하라. **78년생** 배우자와 의견 조율이 필요. **90년생** 도와주는 이가 옆에 있어서 든든하다.

**양** **43년생** 경치는 좋으나 공기가 나쁘니 빨리 나와라. **55년생** 근거 없는 칭찬을 남발하지 마라. **67년생** 참는 자에게 복이 오는 법. **79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을 삼가라. **91년생**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 대화가 필요.

**원숭이** **44년생**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56년생** 미련은 빨리 떨쳐 버려라. **68년생** 나이 든다는 것은 한층 성숙 되는 것. **80년생** 골치 아픈 일은 배우자와 상의해서 처리. **92년생**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매사에 신중해야.

**닭** **45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서명은 다음 날에. **57년생** 출발하려는데 손님이 와서 잠시 지체. **69년생** 자식 일로 기쁜 소식이 온다. **81년생** 그물에 갇힌 물고기처럼 답답하지만, 오후에는 풀린다. **93년생** 긍정적인 사람에게 한계는 없다.

**개** **46년생** 자식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58년생** 고수익투자로 헛된 꿈을 꾸고 있다. **70년생** 아랫사람과의 연대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 **82년생**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미끼도 많이 준비. **94년생** 내키지 않은 술자리는 피하라.

**돼지** **47년생** 나이 들수록 지갑을 열어야 한다. **59년생**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 **71년생**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되니 안부를 물어라. **83년생** 만나는 즐거움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라. **95년생** 바람이 마음을 흔들어 댄다.

#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3 | 2 | 6 | | | | 7 | 4 | 9 |
| | | | 6 | 9 | 4 | | | |
| | 3 | 1 | | | | 6 | 2 | |
| 6 | | | | | | | | 7 |
| | 4 | | | 7 | | | 5 | |
| 2 | | 4 | 8 | | 1 | 3 | | 5 |
| 5 | | 9 | | | | 8 | | 1 |
| | 1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6 | | 8 | | 7 | | 5 | | 1 |
| | 9 | | 5 | | 1 | | 6 | |
| | 5 | 9 | | | | 3 | 4 | |
| | 6 | | | 5 | | | 9 | |
| | | 4 | | | | 8 | | |
| | | | 8 | 3 | 9 | | | |
| 9 | 3 | | | 6 | | | 7 | 8 |
| | | 1 | 2 | | 7 | 6 | | |

### 스도쿠 정답

| | | | | | | | | |
|---|---|---|---|---|---|---|---|---|
| 4 | 9 | 8 | 2 | 3 | 7 | 5 | 1 | 6 |
| 3 | 2 | 6 | 5 | 1 | 8 | 7 | 4 | 9 |
| 1 | 5 | 7 | 6 | 9 | 4 | 2 | 8 | 3 |
| 7 | 3 | 1 | 9 | 8 | 5 | 6 | 2 | 4 |
| 6 | 8 | 5 | 1 | 4 | 2 | 9 | 3 | 7 |
| 9 | 4 | 2 | 3 | 7 | 6 | 1 | 5 | 8 |
| 2 | 7 | 4 | 8 | 6 | 1 | 3 | 9 | 5 |
| 5 | 6 | 9 | 4 | 2 | 3 | 8 | 7 | 1 |
| 8 | 1 | 3 | 7 | 5 | 9 | 4 | 6 | 2 |

| | | | | | | | | |
|---|---|---|---|---|---|---|---|---|
| 7 | 1 | 5 | 6 | 2 | 4 | 9 | 8 | 3 |
| 6 | 4 | 8 | 9 | 7 | 3 | 5 | 2 | 1 |
| 2 | 9 | 3 | 5 | 8 | 1 | 7 | 6 | 4 |
| 8 | 5 | 9 | 7 | 1 | 2 | 3 | 4 | 6 |
| 3 | 6 | 7 | 4 | 5 | 8 | 1 | 9 | 2 |
| 1 | 2 | 4 | 3 | 9 | 6 | 8 | 5 | 7 |
| 4 | 7 | 6 | 8 | 3 | 9 | 2 | 1 | 5 |
| 9 | 3 | 2 | 1 | 6 | 5 | 4 | 7 | 8 |
| 5 | 8 | 1 | 2 | 4 | 7 | 6 | 3 | 9 |

문제 제공= 보누스

# 김상회의 四季

## 악플 자작자수

옛날에는 동네 우물가가 소문의 발원지일 것이다. 현대는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몰래카메라에 담겨 온 세상에 떠돌기도 하는 시대가 되었다. 말뿐만 아니라 모습과 행동거지까지도 보란 듯이 개방되는 시절이 되었으니 분명 즐거운 일은 아니듯 싶다.

무엇보다도 인간이 존재하는 한 악플과 같은 설난(舌亂)은 그 폐해가 자못 심각하여 인터넷 발달의 순기능까지도 회의에 빠지게 만든다. 옛날부터 삼재팔난에 관재구설이 있듯 인간 세상은 말로 겪는 화가 엄청나다.

때로는 재미를 위해서 때로는 질시로 가십을 삼기도 한다. 합당한 비난을 악플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은 충고라 하지 굳이 악플이라 표현하지 않는다. 옛 선비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은 말이라면 상소를 올려 굳은 뜻을 피력했다. 그러나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려진 필명 뒤에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으로 비방을 하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비판과 비난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석가모니부처님도 이 세상에 비난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라고 하지 않았던가. 예수님조차도 자기 죄가 없는 자는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했듯이 말이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어느 배우의 우울한 자괴감도 결국은 악플로 인한 것이라는 얘기이다. 모든 일이 다 마음이 만들어낸 환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해도 가슴 아픈 마음 금할 길이 없다. 그러나저러나 악플을 다는 이들도 다 자신의 마음에 속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하리라. 분명히 자신이 짓고 자신이 받는 업의 이치 즉 자작자수(自作自受)란 것을 안다면 감히 악플을 즐기지는 못할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 | |
|---|---|
| 발 행·편집인 편집국장 | 이 장 규 |
| 인 쇄 인 | 중앙일보(주) |
| 광고문의 / 독자센터 | 02)721-9851,9826 / 02)721-9861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20호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24호 |